

## 주일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 름	누가복음 3:4-6절
+	찬 송	64장/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다함께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다함께
	찬 송	112장/다함께
	대 표 기 도	현석호 장로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2:1-12절/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평강의 왕/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서성민 목사
	찬 송	122장/다함께
	봉 헌 기 도	인도자
성탄 전야제		
	교 회 소 식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6절/다함께
+	응 답 송	322장(3절)/다함께
+	축 도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순서 : 12월 31일-손조훈 집사/1월 7일-박병민 장로

## 또 다시 성탄을 맞으며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1세가 서거했다. 취임한지 겨우 33일만의 죽음이었기에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장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이런 일기문이 공개되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주시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짧은 글이었다. 이 내용에 충격을 받은 것은 노벨평화상 위원회였다. 저들은 논의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한다. 본래는 중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고한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되었던 것이었다.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맞는다. 내일이 바로 구주탄일이다. 성탄의 의미는 상술에 넘겨버린 지 오래 되었고 ‘힐라데이’ 라는 이름에 묻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마치 못해 교회가 성탄 의미를 유지하려고 갖은 힘을 짜내고 있지만 갈수록 역부족이다. 복음은 분명 능력이다. 더 이상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데 지체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성탄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구주께서 구유에 오신 이유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방이 없어서 구유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면서 ‘산실청’을 설치하시지 않았을까? 말이 ‘구유’이지 말 밥통이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신 것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호적 하러 고향을 찾은 사람이 인산인해 일지라도 고작 방 하나를 구할 능력이 없으셨을까? 왕이 구유에 오셨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가난과 소외와 아픔 속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오셨음을 구유가 웅변하고 있다. 성탄을 맞을 때 성탄의 의미를 내 마음에 기리고 그 성탄의 의미로 향해서 내 마음과 인격과 생활이 변화될 때에 거기서 성탄의 실존적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성탄 전야제			
		사회 : 안재민, 최지훈	
찬 양	-기쁜 이 날, 난 기다려요-	아 동 부	
성 탄 메 들 리	-성탄 칸타타-	중 고 등 부	
워 십 댄 스	-저기 저 별이-	아 동 부 가 족	
길보리 4중주	-너 근심 말아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김 성 욱 외 4	

수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신 합니다.

## 교회소식

1.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구주 성탄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성탄 감사 예배가 세례식(유아 세례 포함)과 함께 내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3.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번주에 사무엘상을 계속 읽습니다.
4. 2023년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밤 11시에 성찬식,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과 함께 있습니다. '24년도에 소망하는 신앙의 진보를 위한 결단 2 가지를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타임 캡슐에 봉합하여 보관 24년 송년 예배에서 개봉).
5. 24년에 달라지는 교회사역들이 있습니다.
  - 1)수요일 예배가 저녁 7시로 30분 당겨집니다. (24년 1월17일 첫 수요일예배)
  - 2) 매달 셋째 주일은 공동체 주일로 예배 후에 각 공동체 예배를 교회에서 각각 드립니다.
  - 3) 새벽기도회가 영상으로 매주 화, 수, 목, 금 4일간 5시 50분부터 있습니다. (2024년 1월 9일부터).
6. 24년 한해 교회를 섬길 성도들은 어느 분야든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교회학교 교사, 예배 안내, 공동체 인도자, 공동체장,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예배 전후 정리 등).
7. 24년도 교회 생활 핸드북에 새로 수록할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전화번호 변경 등).
8. 연말 당회가 12월 26일 오후 5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님과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 12월 DEC

### ☪교회사역일지

- \*12월3일(주일)  
대림절 1,  
선교회총회
- \*12월11일(월)-15일(금)  
저녁 기도회
- \*12월24일(주일)  
성탄주일
- \*12월25일(월)  
성탄예배, 세례식
- \*12월31일(주일)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  
(밤11시),성찬식

### ☪예배시간안내

- \*주일예배 1:00pm
- \*정년예배 3:00pm
- \*유아부 1:00pm
- \*아동부 1:00pm
- \*중고등부 1:00pm
- \*수요일예배 7:30pm

### ☪예배봉사자

- \*예배안내 허영순
- \*새신자안내 이기중
- \*주차안내 민광호
- \*주방봉사  
박제란,김명옥,  
박영선,박혜정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태한
- \*부목사 서성민
- \*부목사 송성한
- \*전도사 김양이

다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로마서12:1-2)

25권 52호



## 성탄 주일

2023년 12월 24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7월 18일



담임목사 이태한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MB 021.968.388  
Email.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